

격 려 사

청명한 기운과 수확을 나누는 넉넉한 절기에 남도의 예향 전주에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하던 축제가 올해는 전북의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며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을 수상한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다는 뜻으로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현시대의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오늘의 축제는 계절의 풍성함처럼 조화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할 때마다, 훌륭한 문화로 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슬기로운 행동으로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와 서역, 그리고 중국을 거쳐 해동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노력은 인류문화사에 중요한 기록이자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 일이 불과 이십여년 전이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실질적 정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십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라는 말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과 불자들은 아직 그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오늘의 축제를 계기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향기롭고 고마운 일인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님과 전주시에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과 전북도민이 서로 조화로운 축제를 위해 진력을 다하신 금산사와 선운사, 그리고 참 좋은우리절 대중과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종단의 스님들과 단체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정진과 오늘의 축제에 담긴 너그러움이 이웃 모두에게 행복한 웃음으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